

호류지 오오노 겐묘 관장 강연회

'쇼토쿠 태자와 호류지'

(2018년 10월 20일, 도쿄도 신주쿠구)

사회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류지가 있는 이카루가초는 나라 역에서 JR로 10분, 오사카 덴노지에서 20분, 교토에서도 1시간 20분이면 오실 수 있는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인데, 호류지, 호린지, 호키지, 츄구지, 후지노키코훈 등이 있는 역사 깊은 장소입니다.

호류지에 대해서는 오늘 오노 관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요. 607년 당시 황족이었던 쇼토쿠 태자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最古)의 목조건물로 일

본 세계유산등록 제 1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류지는 건물 이외에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교토의 절은 정원이 유명한 데 나라의 경우는 무엇보다 불상이 가장 큰 볼거리입니다. 석가삼존불상, 백제관음불상, 약사여래불상, 구세관음 등 일본을 대표하는 불상이 호류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1986년까지 1만엔 권 지폐 속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외국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최초로 법률과 관직 제도를 만들고 중국과의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불교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펼친 인물입니다. 그럼 오노 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 오노 겐묘 호류지 관장

호류지 관장 오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호류지가 607년에 창건된 절이라고 소개해주셨는데요. 우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607년을 창건된 해라고 하느냐를 말씀드리자면 쇼토쿠 태자의 아버지인 요메이 천황이 병에 걸렸을 때 “나(쇼토쿠 태자)는 절을 지어 약사여래를 모시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절이 지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실 호류지는 이카루가에 있는 절이라는 의미로 ‘이카루가데라’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606년에 이미 ‘호류지, 즉 이카루가데라’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쇼토쿠 태자가 스이코 천황에게 ‘쇼우만쿄우기쇼’와 ‘훗케쿄우기쇼’를 가르쳤던 때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보자면 607년은 어디까지나 절의 건축이 완성됐을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석가삼존불상과 약사여래불상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병이 회복되길 바라며 '약사여래불상을 만들어 (부처님께) 빌고 싶다'는 계기로 절을 지었으니까 이 절의 본존은 '약사상'이어야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이카루가에 오셔서 호류지를 참배해 보시면 호류지 금당에 있는 본존은 석가모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어긋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호류지는 670년 천둥에 의한 화재로 타 그 후 재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원래 호류지는 아버지인 요메이 천황을 위해 지었는데 왜 재건 시에 약사여래를 모시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호류지의 약사여래불상의 뒤(후광을 표현한 광배 부분)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아버지의 병 치유를 위해 스이코 천황과 쇼토쿠 태자 두 사람이 이 절을 세웠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석가삼존불상의 광배 명문을 보면 서기 621년에 '기젠타이코우', '기'는 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젠타이코우'

즉 쇼토쿠 태자의 어머니인 아나호베노하시히토 황후가 서기 621년 12월 21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인 이듬해 1월 22일에 쇼토쿠 태자가 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왕후 중 한 명인 가시와데노키사키가 병간호를 하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즉 쇼토쿠 태자 부부가 모두 병들어 누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신하와 친척들이 큰 걱정을 하며 삼보(불(佛), 법(法), 중(僧))에 기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후 석가모니의 불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쇼토쿠 태자와 등신대의 불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호류지의 본당에 해당하는 금당에 모셔진 본존은 쇼토쿠 태자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불상을 모시며 모두의 기도를 통해 병이 낫고 장수하기를 바란다는 소원을 빌게 된 것입니다.

## 일본 불교의 시작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류지 금당의 경우에도 역시 쇼토쿠 태자의 병 회복을 바라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7세기) 아스카 시대의 불상은 사실 대부분이 아스카 시대에 (중국으로 파견된) 견수사나 견당사가 직접 중국에 가서 배우고 중국의 새로운 종교나 사상을 일본에 가지고 와 널리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들여온 것을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대체로 8세기 나라 시대 초기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토쿠 태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 622년인데 이때 어떻게 불교를 믿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불교는 중국에서부터 조선을 거쳐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불교가 일본에 전해진 것은 538년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불교가 538년에 일본에 전해졌다면 과연 그 불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불교라는 종교는 일본인들이 평소 믿고 있는 신의 생각과 똑같거나 아주 닮은 신을 모시는 것으로 《일본 서기》에도 '번신(蕃神)=이웃 나라의 신', '불신(仏神)=불(仏)이라는 신', '타

신(他神)=다른 나라의 신'이라고 적혀있듯이 신이라는 것은 이웃 나라의 신 혹은 다른 나라의 신, 혹은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라는 감각인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같은 예가 있지만, 중국에서도 초창기에는 몽골고원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쳐 살고 있던 호족의 신인'호신(胡神)' 그리고'에비스=서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인 '에비스 신(戎神)' 혹은 《일본 서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불신(仏神)'이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평소 믿었던 신이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웃 나라의 신을 모시니 하늘 신, 나라 신이 노하실 것이라 생각하여 일본에서도 모두가 불교를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들어오는 것에 찬성한 것이 소가노 이나메라는 사람입니다. 천황은 그가 찬성하자 곤란해져"그 신을 이나메가 모시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소가노 이나메는 기뻐하며 부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무쿠하라의 집을 불제를 통해 더러움을 씻어내고 절로 삼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 더러움을 씻어내는 하라이 키요메'를 한 것

을 보아도 예전부터 내려오는 일본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부처님을 모실 세 명을 뽑게 됩니다. 이 세 명은 '산고우'라고 해서 비구니를 말하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비구니가 11살이었습니다. 예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지만 흔히 신을 섬기는 무녀와 같은 인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불교는 언제 일본에 전해졌나?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은 538년이지만 일설에는 552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느냐. 그것은 게이타이 천황부터 비타츠 천황까지의 재임 년수가 전혀 다르게 기록된 자료들 때문입니다. 또 긴메이 천황이 즉위한 후 나라를 다스렸던 년수도 전혀 다릅니다. 《상궁성덕 법왕제설》과 원래 아스카데라였던 간고우지의 기원에 관한 기술은 《일본 서기》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게 기술되



거나 재기록되는 것 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정사(正史)는 반드시 어느 특정 인물이나 특정한 일족을 드높이기 위해 지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타이 천황부터 이후에 즉위한 천황에 이르는 시간 동안 발생한 복잡한 사건들은 유리한 쪽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으리라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양한 전승과 구전 등은 여러 사람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걸 당시에는 연호를 쓰지 않고 12간지로 쓴 것입니다. 년수로 따지자면 같은 연호가 두 번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2간지를 잘못 배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역사서 등을 편찬하기 위해 모아놓은 전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 곳에서 몇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일본 서기》뿐 아니라 다른 기록물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승에서 기록물로 바뀌어 완성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메이지 150년에 해당하는데 메이지 시대의 역사만 보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을 때나 아스카 시대, 그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역사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해도 되는가 하면 (이 외에 다른) 사료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불습합의 뿌리

일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선조가 모셨던 신과 여러 산과 강을 기리며 선조를 소중히 여기고 대지의 은혜와 대지의 위협을 공유해 왔습니다. 게다가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도우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확산되어가면서 사회도 점점 변화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쇼토쿠 태자는 특수한 사정으로 황족이면서도 소가노 이나메를 중심으로 도래한 사람들과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도래인이 믿고 있던 것이 불교, 보살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보살 사상이라는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불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과 지금까지 일본인이 오랜 시간 키워온,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사고방식이 쇼토쿠 태자의 머리속에서 정확히 일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쇼토쿠 태자라는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 불교가 전승되었다는 뜻입니다.

## 일본인의 부처에 대한 인식

당시 기록에 세상의 이치이자 모두의 소원에 상반되는, '떠나가 정토에 '올라"라고 적혀있습니다. 기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식으로는 정토가 오르는 곳입니까? 보통은 '왕생(이 세상을 떠나 극락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정토에 오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토'라는 말이 사용된 금석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떠나가 정토에 '올라"인데 어느 경전을 보아도 부처님의 땅은 반드시 수평선 상에 있습니다. 아미타의 정토라고 하더라도 수평선 위의 서방십만억토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계

신다는 식입니다. 《아미타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론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모든 분이 마음속으로 수평선 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단계에서는 인도에서 흥한 불교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일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불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신이거나 아니면 인도의 신들을 포함해 일본인은 다카야마하라와 같은 신의 세계는 위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처에 대한 인식은 나라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 쇼토쿠 태자와 같은 크기의 불상

622년 2월에 쇼토쿠 태자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당 석가삼존불상의 광배명에는 '다음날 법황

이 승천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쇼토쿠 태자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법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신도의 지식'이라고 나오는데 '신도=도를 믿는 지식' 즉 불교를 믿는 혹은 쇼토쿠 태자의 불상을 만들 것을 발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상 천존의 왕신' 즉 쇼토쿠 태자와 같은 크기의 불상을 만들자는 소원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만들었는지는 제쳐두고라도 '불상 천존의 왕신'을 만들자고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는 아직 쇼토쿠 태자가 살아있었습니다. 즉 쇼토쿠 태자가 병을 앓고 있었지만 아직 살아있던 때부터 '불상 천존의 왕신'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석가모니상을 쇼토쿠 태자와 같은 크기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다른 곳에도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존재합니다.

중국 북위 왕조 때 탁발준이라는 사람이 원강의 석굴과 자신의 이전 오제를 공양하기 위해 절을 지었습니다. 오제라는 것은 북위 왕조 초대 5대 황제라 칭하는 탁발규, 탁발사, 탁발도 그다음은 황태자이자 죽은 탁발준의 아버지 '고우'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탁발황이라고 불린 인물, 그리고 탁발준입니다. 탁발준은 태어나면서 석가모니상을 자신의 공양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쇼토쿠 태자가 살았던 시대에 전해진 것입니다.

## 견당사

쇼토쿠 태자는 607년에 이노노 이모코를 비롯한 견당사를 파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당시 하면 '해 뜨는 곳의 천자 해지는 곳의 천자...'라는 문언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것은 전쟁 이전부터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중국 북위와 북주에서 큰 폐불 운동이 일어난 뒤 다시 부흥시킨 것이 수나라의 문제(文帝)인데 쇼토쿠 태자는 이 수나라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당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서》의 '대업삼년'이라는 부분을 보면 '해서의 보살 천자'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거듭 불법을 흥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적대 세력에 의해 두 번이나 폐불되었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지은 성이 '다이코우쥬'이고 세운 절이 '다이코우젠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가치관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상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 석가삼존불상의 완성

금당 석가삼존불상의 광배명을 계속 읽어 보면 쇼토쿠 태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계미년(스이코 31년/623년) 3월에 바람대로 삼가 석가의 존불상과 협시 및 장엄구를 완성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불상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3월에 완성했기 때문에 아마도 쇼토쿠 태자의 1주기에 맞추려고 열

심히 공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1주기에 맞춰 완성하지 못하고 그보다 조금 늦은 3월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이 세상에 나와 죽으면'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인데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삼주(三主)(먼저 세상을 떠난 아나호베노하시히토노히메미코 황후와 쇼토쿠 태자의 부인인 카시와데노키사키와 쇼토쿠 태자)를 따라 기리며 삼보(三寶)를 이어 받아'즉, 죽음 그 이후에도 삼보를 널리 알려 '드디어 정토를 함께하며'삼보를 널리 알리고 불교의 수행을 하며 드디어 깨달음을 얻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623년에 쓰였다는 것은 그 시점에 이미 이러한 생각이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쇼토쿠 태자가 살아있을 때 쓴 것이라면 《삼경의서》나 《십칠조헌법》과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쓴 것은 쇼토쿠 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쇼토쿠 태자는 병에 걸려 생사를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럼 과연 누가 썼을까요. 에지 법사가 썼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에지 법사는 615년에 귀국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쇼토쿠 태자 이외에도 주변에 이런 내용의 글을 생각해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석가삼존불상 광배명을 지은 사람은?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보편의 육도 법계의 중생도'라고 있습니다. 보편의 육도, 법계, 중생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도(六道)란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하늘'을 말하는데 이런 세계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연을 벗어날 수 있어서'즉 방황하고 힘든 세계에서 해방되어 '같이 보리를 향해간다'고 이어집니다. 여기에 쓰인 것은 완전하고도 이상적인 보살 사상입니다.

우리는 번뇌에 휩싸여 평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행한 대단한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방황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리를 향해간다'라는 문장을 보면 모두가 함께 '보리=깨달음'을 향해 가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석가삼존불상을 만드는 도중에 쇼토쿠 태자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완성까지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이 금당 석가삼존불상의 광배명을 생각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바쿠라츠쿠리노오비토토리 법사에게 만들게 했다'라고 쓰여 있는 걸 보면 토리 법사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상의 광배명에 대해 보면 오래된 불상 중에 만든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주 적는데, 이 금당 석가삼존불상의 광배명에는 확실히 '토리 법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에 대형 불상이 있어도 그 목적과 불상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에서도 자주 볼 수 있지만 광배명에는 불상의 만든 이가 적혀 있는 경우는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 덴쥬코쿠슈초우(천수국수장)

금당 석가삼존불상의 광배명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적혀진 것으로 알려진 '덴쥬코쿠슈초우(천수국수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츠우구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스이코 천황에게 쇼토쿠 태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마음 아프다. 마음 속에서 여러 생각을 해보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쇼토쿠 태자와 그 부인인 아나호베노하시히토 황후가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이어져 '쇼토쿠 태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며 오직 부처님의 세계 만이 진짜 세상이라고. 쇼토쿠 태자는 덴쥬코쿠라는 나라에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덴쥬코쿠란 어떤 나라이냐. 일반적으로 '하늘'에 '달'과 '태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은 '삼족오'를 나타내며 '달'은 '토끼'와 '개구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신선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토에 오른다'의 '정토'에 대한 가치관은 사실 이 단계에서 뒤섞이게 됩니다. 신

의 세계인지 불교가 말하는 '하늘'인지, 신선 사상의 '하늘'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덴쥬코쿠 라는 나라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상상이 잘 안되지만 그분이 지금 어떻게 계실지 그림으로 그린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싶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들은 스이코 천황은 깊은 감명을 받아 덴쥬코쿠슈초우의 제작을 명합니다. 덴쥬코쿠슈초우를 만든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석가삼존불상 보다 훨씬 더 이전에 완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덴쥬코쿠슈초우는 어떤 영문인지 도중에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거기에 쓰인 문자는 아마 고대의 것을 쓴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새롭게 만든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를 테면 덴쥬코쿠슈초우에 쓰인 것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한정된 이 시기에 대해서만 제작자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저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여래불상은 이카루가궁 화재 발생 시에 함께 불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약사여래의 비문 만은 옛것을 답습해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큰 문제의 하나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법황과 천황

마지막으로 앞서 '법황'이라는 이름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렸습시다만 '법황'이라는 말은 석가삼존불상의 광배 비문에 나와있습니다. '법황'이라고 이름 붙인 경우는 많지 않지만 쇼토쿠 태자는 예부터 '법황'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약사여래의 비문 속 문언 중 아주 중요한 것이 가장 마지막 줄의 내용인데 거기에 '동궁 성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동궁'이라는 것은 '황태자'를 가리킵니다.

'동궁'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더 이후의 시대로 알려져 있지만 '동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이전부터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복잡해진 시기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천황'이라는 이름이 언제 생겨났냐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7세기 후반기 덴무 천황 때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국 오호(五胡)국에는 '천황'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수장이 이웃 수장을 물리치고 자신이 왕이 되고 황제가 되며 또한 그 아들을 황제로 만들고 자신을 '천황'이라고 부른 예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사천왕'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황'은 그런 말에서 힌트를 얻어 중앙아시아 출신의 유목민들이 '천황'이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